

지역 농식품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전주시, 농식품기업 대표·지원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 갖고 애로사항 청취·지원방안 논의

전주시는 지난 15일 대우빌딩 3층에서 농산물을 활용해 다양한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지역 농식품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농식품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김종성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지역 농식품기업 대표,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과 한국식품연구원 등 지원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농식품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과 기술지원, 마케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했다.

특히 시는 농식품기업과의 허심탄회한 소통의 장으로 꾸며진 이날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건의사항을 수



전주시는 지난 15일 대우빌딩 3층에서 농산물을 활용해 다양한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지역 농식품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렴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농식품기업들은 지역 농식품기업의 대다수가 소규모 기업인 만큼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 지원, 인력 지원 등을 요청했다.

시는 이날 농식품기업들이 제시한 의견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현장 방문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성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앞으로도 농식품기업과의 진솔한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농식품기업의 성장을 돕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농식품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건의사항을 반영해 올해 총사업비 8000만 원을 투입해 3개 분야 7개 사업으로 구성된 ‘역량강화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김옥기 기자

음식물쓰레기 줄인 우수 공동주택 시상

전주시, 3개월 감량대회 결과 총 8개 공동주택 선정

입주민들이 힘을 모아 음식물쓰레기를 줄인 8개 공동주택이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됐다.

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세대규모별로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세대당 평균 배출량 감량량을 기준으로 감량 목표인 2% 감량을 달성한 201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 용기와 종량제봉투 등을 인센티브로 제공할 방침이다.

최현창 전주시 자원순환본부장은 “적극 동참해 주신 주민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회 결과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www.jonju.go.kr)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63-281-8409)로 문의하면 된다.

/김옥기 기자

남부시장 옛 원예공판장,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

전주시, 21일부터 문화공판장 작당 2층서 ‘희망의 그라피티’ 전시

전주 남부시장 내 사용되지 않던 옛 원예공판장 건물이 서브컬처를 기반으로 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돼 시민들에게 제공된다. ‘서브컬처’란 주류 문화와는 다른 소수 문화로 특정 음악과 예술, 패션, 라이프스타일 등을 공유하는 새로운 마니아 문화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주시는 오는 21일부터 4월 21일까지 한 달 간 서브컬처 중심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문화공판장 작당’의 개관을 기념해 ‘희망의 그라피티’를 주제로 한 전시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문화공판장 작당 2층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서브컬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됐으며, 대규모 전시·행사 공간, 전시실, 문화교육장, 공유공간, 야외정원 등을 갖추고 있다.



전주 남부시장 내 사용되지 않던 옛 원예공판장 건물이 서브컬처를 기반으로 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돼 시민들에게 제공된다.

문화공간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금요일과 토요일은 남부시장 야시장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될 예정이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일이다.

오는 4월 시설 정식 개관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희망의 그라피티-스트리트 아트 힘’ 전시는 전주 남부시

장의 새로운 시작과 도전을 응원하는 그라피티 전시이다.

‘문화공판장 작당’은 서브컬처 분야의 대표 미술 장르인 ‘그라피티’ 아트를 통해 공간의 정체성과 운영 방향을 미리 시민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이번 전시를 기획했다.

구체적으로 전시는 두 명의 그라피티 작가가 유휴공간의 재탄생과 ‘스

트리트 아트’를 주제로 상호 작용하며, 작가 간 상호 조응을 대칭적인 형태로 구현한 작품을 선보인다.

먼저 그라피티 페인터 광세(PpangSe) 작가의 ‘희망의 그라피티’는 전주의 상징인 개나리와 까치를 통해 희망과 긍정을 표현한다. 이는 봄의 시작과 무한한 가능성을 상징하며, 지역사회에 새로운 에너지를 전파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또한 전주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그라피티 라이터 반(BAN) 팀은 지역의 아티스트들이 글로벌 문화의 흐름을 어떻게 자신들의 이야기와 연결하며, 독특하고 다양한 문화 표현의 형태로 재창조하는지 보여줄 예정이다.

이에 대해 노은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개관 기념 전시를 통해 전주남부시장을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 쉬는 장소로 재조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설공단 직원이 해빙기를 맞아 시설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전주시설공단, 해빙기 시설 안전 점검

27개 운영 시설 전체 대상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은 해빙기를 맞아 대대적인 시설 안전 점검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유·무로 주차장 103개를 포함해 공단에서 운영하는 27개 시설 전체가 대상이다.

시설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건축물 기울기, 침하, 균열 상태 △배수구 및 난간 설비 안전상태 △건축·전기·기계·소방 등 분야별 사항에 대해 공단 기술직 직원이 직접 현장에서 안전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정비가 시급한 경우 즉시 현장 정비를 실시했으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보수계획을 수립해 위험 요소가 개

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안전 점검은 연간 추진 중인 ‘안전점검의 날’의 일환이다.

공단은 시민과 직원 모두 안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월별로 테마를 선정해 안전점검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설 명절을 대비해 안전점검의 날을 진행했으며, 다음 달에는 ‘재해경감활동 및 도상훈련’을 테마로 안전점검의 날을 진행한다.

구대식 이사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발 빠르게 해빙기 시설 안전 점검을 진행했다”며 “기온 상승으로 이용객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이용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음식점 시설개선자금 최대 700만원 지원

전주시는 오는 28일까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과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소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전주시에 주소와 영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식사류 제공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이다. 단, 최근 1년 이내에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거

나 지방세 등 체납 기록이 있는 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영업장 내 손씻는 시설 설치 △음식점 출입구 경사로 설치 △기존 좌식테이블의 입식테이블 전환 △넓은 조리장 등 위생시설 개선 △객석 바닥 및 벽면 등 환경개선 비용이다. 업소당 전체 비용의 최대

70%(최대 700만 원)가 지원되며, 나머지 30%는 업소에서 부담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전주시청 누리집(www.jonju.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전주시청 환경위생과(현대해상 8층)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김옥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인자였다.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면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공각



내아

전주매일 캠페인